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28, 18-20)

두치오 (Duccio Di Buoninsegna), Appearance on the Mountain in Galilee

[제1독서] 이사야서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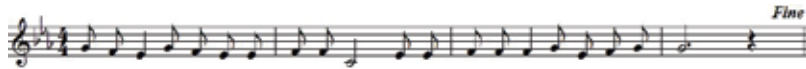
[제2독서] 로마서 10,9-18

[화답송] 시편 98(97), 1.2-3 가, 3.2-4.5-6
(◎ 2 참조 또는 3.2-4)

[복음 환호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복음] 마태 28,16-20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219] 주여 몸과 맘 바치오니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451] 주께 나아가리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때에 ¹⁶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리는 의심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¹⁶ Meanwhile the eleven disciples set out for Galilee,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arranged to meet them.

¹⁷ When they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though some hesitated.

¹⁸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He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¹⁹ Go,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s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²⁰ and teach them to observe all the commands I gave you. And look, I am with you always; yes, to the end of time.’

묵상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함께, 곁에”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버림받고, 위협에 빠지고, 불신의 늪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지켜 줄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신뢰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면서 말없이 곁에서 손을 잡아 주며 함께 아픔을 견뎌 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누렸지만,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자리에서조차 더러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협조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게 하시며, 교회를 성장시켜 주심으로써 성취됩니다. 성령의 현존은 바로 예수님 약속의 보증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바오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법입니다. 내 믿음도 부모님이나 친구, 지인들의 안내와 전교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멘토(스승)나 후견인이 필요했듯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믿음의 멘토이자 후견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나!”라는 외침처럼 우리 안에서 먼저 복음의 기쁨이 움터 나올 때 가능함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을 잃고 있는 교우는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들을 향해 달려갑시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지내고 있는 자비의 특별 희년은 2016년 전교 주일에도 특별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자비의 희년은 우리에게 만민 선교를 영적 육체적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자비의 활동으로 여기도록 초대합니다. 전교 주일에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제자로 밖으로 나아가 저마다 자신의 능력, 창의력, 지혜,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 온 인류에게 하느님의 온유함과 연민을 전하여 주도록 권유받습니다. 교회는 선교 사명의 정신으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돌봅니다. 교회는 모든 이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뛰는 심장인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야” (칙서, 「자비의 얼굴」, 12항) 하고,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자비를 선포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가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비는 강생하신 말씀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로 넘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 교회는 무엇보다도 인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눈길을 깨닫고 그분께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이 사랑을 모든 민족들이 알도록 합니다.

초기 교회처럼, 연령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이러한 자비로운 사랑을 증언합니다. 선교 분야에서 남성들과 함께 활동하는 여성의 존재감이 상당히 증대된 것은 하느님 모성애의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여성 평신도나 수도자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부터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선교 소명을 수행합니다. 선교사들의 복음화 활동과 성사적 활동과 더불어, 여성들과 가정들은 종종 사람들의 문제를 더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돌보면서 조직보다는 인간을 더 중시하며, 인적 영적 자원을 분배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삶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 조화, 평화, 연대, 대화, 협력, 형제애를 구축해 나가며,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봅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화가 교육으로 시작되어 선교 활동을 하는 이들은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마치 복음에 나오는 자비로운 포도 재배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교육을 실천한 이후에야 얻게 되는 열매를 인내롭게 기다립니다(루카 13,7-9; 요한 15,1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복음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이들 또한 교회를 어머니로 여길 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랑입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분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비의 모성적 봉사를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지 개종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신앙과 사랑으로 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한한 사랑, 곧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품고 세계 곳곳의 거리를 누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들과 문화는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의, 전쟁, 인도적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경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의 복음이 기쁨과 화해,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라는 복음의 사명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도전에 맞서 새로운 선교 여정에 나서려는 부르심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관하여 저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주님께서 가리켜 주시는 그 길을 잘 식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안위를 떠나 용기를 갖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모든 ‘변방’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따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20항).

이 희년에 우리는 제90차 전교 주일을 맞이합니다. 전교 주일은 1926년에 비오 11세 교황께서 처음 승인하시고 교황청 전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선임 교황들의 현명한 지침들을 상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분들께서는, 전 세계 모든 교구, 본당, 수도회, 협회, 교회 운동에서 헌금을 모아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어, 어려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돌보고 심지어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그 헌금이 사용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의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온 인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구원받은 인류의 숭고한 표상이자 교회 선교사들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님께서 모든 이와 가정이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신비로운 현존을 어디에서든 알리고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관계와 문화와 민족들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이를 기쁨이 넘치는 자비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하상회 10월 모임

본당의 70세 이상 형제들의 모임인 하상회(회장 최환용 바오로)의 10월 모임이 지난 16일(일) 오전 친교실에서 열렸다. 4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모경을 시작으로 병중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병자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바쳤다.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의 강복과 전 사도 회장 김창호 (비안네) 형제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재미있는 뒷이야기 등이 이어졌으며 오랜 지병으로 불참하는 회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원들은 꾸르실료 팀이 제공하는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이성범 형제가 만든 묵주로 마침 기도를 드렸다.



안나회 10월 모임

70세 이상 자매들의 모임인 안나회(회장 류영순 안나) 10월 모임이 지난 1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7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주기도로 시작하여 성원경 보좌신부의 강복, 점심 식사, 그리고 여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식사 후에는 강금생(안나) 자매의 지도로 치매 방지를 위한 손가락 운동 함께 하기가 이어졌다. 모임 내내 김원중, 지경수 형제의 2인조 밴드가 흥겨운 음악을 연주해 주었다.



레지오 마리아 가두 선교 실시



영광의 어머니



겸손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가두 선교가 10월에 들어서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 영광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단장 정우석 빌립보 외 1명) 과 겸손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단장 노응홍 아브라함 외 2명)이 각각 10월 2일과 10월 16일, 센터빌 롯데와 센터빌 H마트에서 천주교를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쇼핑객들에게 가두선교를 실시하였다. 현재 본당 산하 레지오 마리아의 43개 브레시디움 중 11개 팀이 가두 선교에 나서고 있다.

10월 꼬미시움 월례회의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 10월 월례회의가 지난 16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있었다. 묵주기도, 사업 보고, 상급 평의회 소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영적 지도 신부인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훈화 말씀에서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가두 선교 현황, 프랭크 더프 기념 미사(11월 7일 오후 7:30, 토마스 모어 주교좌성당) 참석 등을 논의했다.

Sunday School Gym Activity

6th grade Sunday school students had a fun activity time with their teachers at the gym on Oct 16th. Students enjoyed time hanging out with friends, shoot around, and play some dodgeball.



St. Paul Chung PTO Fundraising

St. Paul Chung Sunday school's PTO is accepting generous donations from the parents of school and church community. The raised funds will be used for Sunday school teachers' end of year appreciation gifts as well as our student's small gifts.

Where

Multipurpose room

When

Oct 23rd (Sun)
after 10:00 / 11:40 M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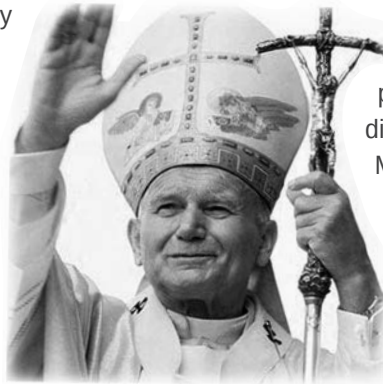


Saint Story

St. Pope John Paul II Feast date : Oct 22

Saint John Paul II (May 18, 1920 – April 2, 2005) was Pope from 1978 to 2005. He is widely known to Catholics as Saint John Paul the Great, especially in the names of institutions. He was elected by the second Papal conclave of 1978, which was called after the death of Pope John Paul I. John Paul II is recognized as helping to end Communist rule in his native Poland and eventually all of Europe. John Paul II significantly improved the Catholic Church's relations with Judaism, Islam, the Eastern Orthodox Church, and the Anglican Communion. He upheld the Church's teachings on such matters as artificial contraception and the ordination of women, but also supported the Church's Second Vatican Council and its reforms.

He was one of the most travelled world leaders in history, visiting 129 countries during his pontificate. As part of his special emphasis on the universal call to holiness, he beatified 1,340 people and canonized 483 saints, more than the combined tally of his predecessors during the preceding five centuries. By the time of his death, he had named most of the College of Cardinals, consecrated or co-consecrated a large number of the world's bishops, and ordained many priests. A key goal of his papacy was to transform and reposition the Catholic Church. His wish was "to place his Church at the heart of a new religious alliance that would bring together Jews, Muslims and Christians in a great religious armada."



He was the second longest-serving pope in modern history after Pope Pius IX, who served for nearly 32 years from 1846 to 1878. Born in Poland, John Paul II was the first non-Italian pope since the Dutch Pope Adrian VI, who served from 1522 to 1523. John Paul II's cause for canonization commenced in 2005 one month after his death with the traditional five-year waiting period waived.

On 19 December 2009, John Paul II was proclaimed Venerable by his successor Pope Benedict XVI and was beatified on 1 May 2011 (Divine Mercy Sunday) after the Congregation for the Causes of Saints attributed one miracle to his intercession, the healing of a French nun from Parkinson's disease. A second miracle attributed to John Paul II's intercession was approved on 2 July 2013, and confirmed by Pope Francis two days later (two miracles must be attributed to a person's intercession to be declared a saint). John Paul II was canonized on 27 April 2014 (again Divine Mercy Sunday), together with Pope John XXIII.

On 11 September 2014, Pope Francis added John Paul II's optional memorial feast day to the worldwide General Roman Calendar of saints, in response to worldwide requests. It is traditional to celebrate saints' feast days on the anniversary of their deaths, but that of John Paul II (22 October) is celebrated on the anniversary of his papal inauguration.

1. Looking for basketball coaches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2. Fall Open Class

- When : Oct 30th (10:00am - 11am)

3. Jr. High Activity (6th-8th Graders)

- Who : 6th-8th graders
- When : Oct 29th (Sat) 1:30pm - 4pm
- Where : Hasang building, Room #106
- Please bring garden gloves and trowel. Snack will be provided.

4. 1st Communion class registration at the Hasang building from 10am to 1pm

- The class will start on Nov 16 (Wed) at 7:45pm



청소년 기금 마련 단체 족구대회

청소년기금 마련을 위한 단체 족구대회가 지난 16일(일) 10시 미사 후 하상관 2층 체육관에서 열렸다. 바오로회 (6명), 베드로회 (5명), K of C (컬럼버스 기사단 13명)의 정예 족구선수들이 출전한 이날 대회는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의 시작기도에 이어 멋진 시구로 시작되었다. 출전 선수 가족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열전을 거듭, 바오로회가 베드로회를 15:7로 리드하며 우승하였다. 출전 선수들 모두 다음 대회에는 더 많은 본당 단체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아픔도, 역경도, 어려움도, 십자가도, 고통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이 - 후세와 현세에서 -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청사진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책장과 행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고통받는 수백만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큰 불평등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하느님과 함께 5분>중에서

복음화를 위한 기도

-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 아멘.

1 요한회 성지순례

- 일시 : 10월 23일(일) 오전 9시 출발
- 장소 : 16330 Grotto Rd, Emmitsburg, MD 21727
- 문의 : 윤봉근 (703) 307-7939

2 유아세례

- 일시 : 10월 23일(일) 오후 3시, 성당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0월 23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4,5)

4 K of C 토막 특강

- 일시 : 10월 23일(일) 오전 11:30(B-1,2)
- 주제 : 봉사하는 삶
- 강사 : 백인현 주임 신부님
- 본당의 전 신자분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 김 버나드 (703) 342-2194

5 복사단 모임

- 일시 : 10월 23일(일) 오후 12:40(B-1,2)

6 제74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찰고

- 종합교리 : 10월 25일(화) / 10월 26일(수) 오후 8시, 하상관 #110
- 찰고 : 10월 27일(목) 오후 8시, 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 10월 28일(금) 오후 7:30 (금요 미사 중)
- 환영식 : 10월 30일(일) 오전 11:30 (B-1,2)

7 모든 성인의 날 미사

- 11월 1일(화)은 모든 성인의 날로 의무 대축일입니다.
- 미사 : 오후 7:30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오르간 반주 봉사자 모집

-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분 미사 오르간 반주 봉사자를 구합니다.
- 문의 : 박상태 요한 (703) 302-0026

9 울뜨레야 정기모임

- 일시 : 10월 28일(금) 오후 8시 (B-1,2)
- 문의 : 광노덕 도미니교 (703) 608-966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23일(일)	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꾸리아월례회의 (11:40, 하상관 B-4,5), K of C 토막 특강 (11:30, B-1,2), 요한회 성지순례, 복사단모임 (12:40, B-1,2), 유아세례 (15:00, 성당)
24일(월)	연중 제30주간 월요일	아침미사(6:00, 성당)
25일(화)	연중 제30주간 화요일	하상 성인학교 (9:30,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 (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 (20:00), 성령기도회 (20:00, 도서실), 예비자 종합교리 (20:00, 하상관)
26일(수)	연중 제30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예비자 종합교리 (20:00, 하상관)
27일(목)	연중 제30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 (6:00, 성당), 예비자 찰고 (20:00, 하상관)
28일(금)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하상성인학교 (9:30, 하상관), 74차 예비자 영세 및 견진식 (미사중, 19:30), CLC (20:00), 울뜨레야 (20:00, B-1,2)
29일(토)	연중 제30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30일(일)	연중 제31주일	제74차 새영세자 환영식 (11:30, B-1,2), 건강세미나 (11:30, A-1,2)

10 건강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10월 30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겨울철 관절 건강 관리와 낙상 예방 및 운동법
- 강사 : 김우기(안드레아) D.P.T(물리치료사)
- 문의 :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11 꾸르실리스마 영성피정

- 일시 : 10월 30일(일) 오후 1:30 워싱턴 성당
- 권오영 신부님을 모시고 꾸르실리스마 영성 피정을 실시하니 모두 참석하시어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노덕 도미니교 (703) 608-9664

12 파티마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및 갱신

- 봉헌 기간 : 11월 5일(토) ~ 12월 7일(수)
- 참가자 등록 : 10월 23일(일) / 10월 30일(일)
- 참가신청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김만식 재권오셉 (703) 403-1185

13 K of C 입단식

- 일시 : 11월 1일(화) 저녁 8시 하상관
- 입단식이 11월 1일(화) 미사 후 있습니다. 신자분(18세 이상 남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문의 : 김 버나드 (703) 342-2194

14 청국장 가루 주문

- 성모회에서 청국장 가루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 문의 : 장 에디타 (703) 973-7159

15 M.E. (본당) 친선 볼링대회

- 일시 : 10월 30일(일) 오후 2시-오후 4시 (AMF Centreville Ln)
- 본당에서 활동 중인 M.E 팀, M.E. 주말부부를 다녀오신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 회비 : 1인당 \$25/ 팀 \$50
- 문의 : 김이조 베로니카 (703) 864-1236

16 첫 영성체 성사반 등록 안내

- 등록 : 10월 23일부터 등록
- 주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30분, 하상관 로비
- 수업 : 첫 수업/11월 16일, 매주 수요일
- 저녁 7시 45분 - 8시 45분 (하상관 106호 교실)

17 성물부 세일 안내

- 목주기도 성물을 맞이하여 성상, 고상, 목주를 20% 세일합니다.
-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목주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World Mission Sunday 2차헌금
(10월 22일, 23일)

전교주일을 맞아 선교 지원(스리랑카, 피지, 탄자니아)을 실시하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0월 27일(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톤스에서 온 편지** : 200일간의 아프리카 남 수단 봉사 이야기(9, 10회), 아이들을 위해 도착한 자원봉사들
- **인터뷰 / 아, 사람** : 지적장애인들이 속에 깊이 들어가 함께 살아가는 전형정 유소사세실리아(2편)
- **전광진 신부 / 성 정 바오로 성당 특강 제 3편**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일반 지향
언론인
언론인들이 강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언제나 진실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전교주일
전교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의 기쁨과 이를 선포할 의무를 새롭게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10월 16일 (연중 제29주일)

주일헌금	\$ 7,923.63
교무금	\$ 7,345.00
교무금(신용카드)	\$ 1,345.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합계	\$ 16,613.6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희(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임충빈(마카엘)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르자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백범(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안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슬(루시아), 고미엘(마카엘라),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오바마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서양화 아크릴, 수채화, 유화 김이레나(교사자격증) 703-927-9229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오바마 건강보험 카이저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5분 도정 증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Sola Salon 조지 메이슨 앞 유니버시티몰 내 Studio #5 남자 헤어 컷 : \$10 703-868-942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